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09 호 현대불교
2022년 10월 26일(음 10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어떤 죽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주인공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지난 호에 이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높은 것도 높고 낮은 것도 높고, 풀포기는 풀포기대로 높고, 높지 않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독존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신만이 높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광대하고 심오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길이 바로 불교던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데 울화가 치밀면, 겉으로는 말 못 하고 속으로만 '어유, 나한테 그래 봐. 뭐,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기나? 인제 저러다가 큰코다치지.' 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코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식들이든 누구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죽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거를 자기 주인공에다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주인공은 둘이 아니에요. 전구는 이렇게 많지만 스위치는 하나이듯이 모두가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전력을 크게 쓰고 작게 쓸 뿐이지 어떻게 전력이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애나 어른에게 말이나 생각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냥 입력이 됨으로써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용광로에 헌쇠들이 모두 들어가서 저절로 재생이 돼서 나오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지켜보고 관한다면, 바로 용광로에다가 헌것들을 다 넣으니까 저절로 재생이 돼서 나오듯 나옵니다. 그냥 넣는 작업만 하면 재생되는 거는 자동적이죠.

아무리 자기한테 악하게 하고 아무리 죽을 짓을,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거기다 맡기고 돌려놓고 지켜보면서 상대에게는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을 해 주고 부드러운 뜻을 가져야 됩니다. 원망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바로 저 상대가 없을 것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상대가 있는 것이니 내 잘못이 아니겠는가.' 하고 돌린다면 바로 환하게 불이 들어오니까 저쪽의 전구에도 환하게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은 서로가 밝아서, 한 사람이 밝게 쓰니까 다른 한 사람마저 밝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내가 이럭하면 안 되는 건데…. 아이구, 내가 그렇게 했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선 후회를 하고 다시금 마음이 밝아져서 둘이 밝고 정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화목해지니 좋고 애고가 없어지니 좋고 병고가 없어지니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마힐 거사가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몸이 낫는다' 고 한 그 뜻을 한번 새겨 보십시오.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위장 공장, 간장 공장, 척수 공장, 척추 공장, 방광 공장, 콩팥 공장, 심장 공장 할 것 없이 어떤 공장에서든 파워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모든 걸 이끌어 가는 내 마음이 한마음으로 다스린다면 일체가 작용을 해 줘요. 그래서 그 모든 중생들이 건강해지고 파워를 일으키지 않으니 중생들이 있는 이 집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수밖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 헛되게 떨어뜨리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살아나가는 것이 전부 과학 아닌 것이 없는데 물질과학으로 가기 때문에,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50%밖에 모르는 거지요. 보여 주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하면 설계가 나오고 설계가 나왔으면 집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집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포함해서 과학이라고 한다면 심성 과학이라고 해야 될 일이지 심성을 빼놓고는 과학이고 뭐고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한결같이 "너 나가 따로 없고, 네 국토 내 국토가 따로 없고,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길고 짧음이 따로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게 따로 없고 모두가 찰나에 화해서 돌아가니 몰락 놓게 되면 그 도리를 몰락 얻으리라. 버릴 게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오셨는데도 여직껏 상대를 놓고 온통 바깥으로 끄달립니다.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전부 기복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 몸뚱이 돌아가는 도리부터 알고 자기 몸뚱이 속의 중생들부터 제도해서 삽십이응신의 그 도리를, 천백억화신이 내 몸뚱이 속에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부처님의 마음도 가늠할 수 있죠.

이 세상이 말을 안 하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되죠. 제 몸을 아무리 아꼈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집이 훌륭하고 권세가 좋다 하더라도, 자식 부부가 다 있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일체 만물만생이 다 자기같이 살라고 가르쳤어요. 모두가 서로 주고받고 먹고 살듯이, 공생 공심 공체 공용 하듯이 모두 서로 가르치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들을 봐도, 바람에 쓸려서 그냥 뿌리가 뽑힐 듯 말 듯 해도 그 나무는 바람 부는 대로 삽니다. "물이 파도냐, 파도가 물이냐?" 이러는 사람도 있지마는, 물고기들이 다 물속에서 살아야 되듯이 우리 인간들도 다 공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작용이 없으면 우린 멸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물속에는 태양열이 절반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용돌이를 쳐서 모두 굴려줘야 그 생명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도도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순응치 않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살 양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 신부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공부한다면서 한국에서는 왜 스님들이 그렇게 싸우고 치고 박고 그러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화산이 터져서 과학자들이나 인류가 얼마나 발전이 됐느냐. 그와 같이 발전을 시키기 위한 작용이지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 눈이 장님이 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군요.

그리고 "너희 나라에 있는 케네디 대통령 묘지에 가 보니까 불을 훨훨 날리게 해 놓았던데 그렇게 밤낮없이 불이 나오게 한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도리야. 그거는 더하고 덜함도 없이 항상 밝다는 뜻이야. 당신네들도 그렇게 해 놓고 가면서 그 뜻을 모르느냐. 모든 종교가 불교 주먹에, 한 주먹에 있다." 하고 말했죠. 거기 가면요, 신부나 목사님 또는 이름 있는 분들이 초청을 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 또 독일에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지마는 모가 나야 걸릴 텐데 모가 나지 않으니까 걸리지 않습디다. 하하하.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었죠.

하여튼 우리 부처님이 얼마나 장하시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수님도 보살이 되려다 말아서 그렇지, 왜 몸뚱이로 그렇게 돌아다녔느냐. 그러니 그 사대가 그냥 못에 박히지 않았느냐. 부처님은 앉아서 천백억화신으로 제도하셨다. 천백억화신만 되겠느냐. 일체 중생이 자기 아님이 하나도 없이 마음으로 마음을 전달했다면 당시에 그렇게 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겠느냐. 즉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했더라면 그 많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자기 몸뚱이, 자기 집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요.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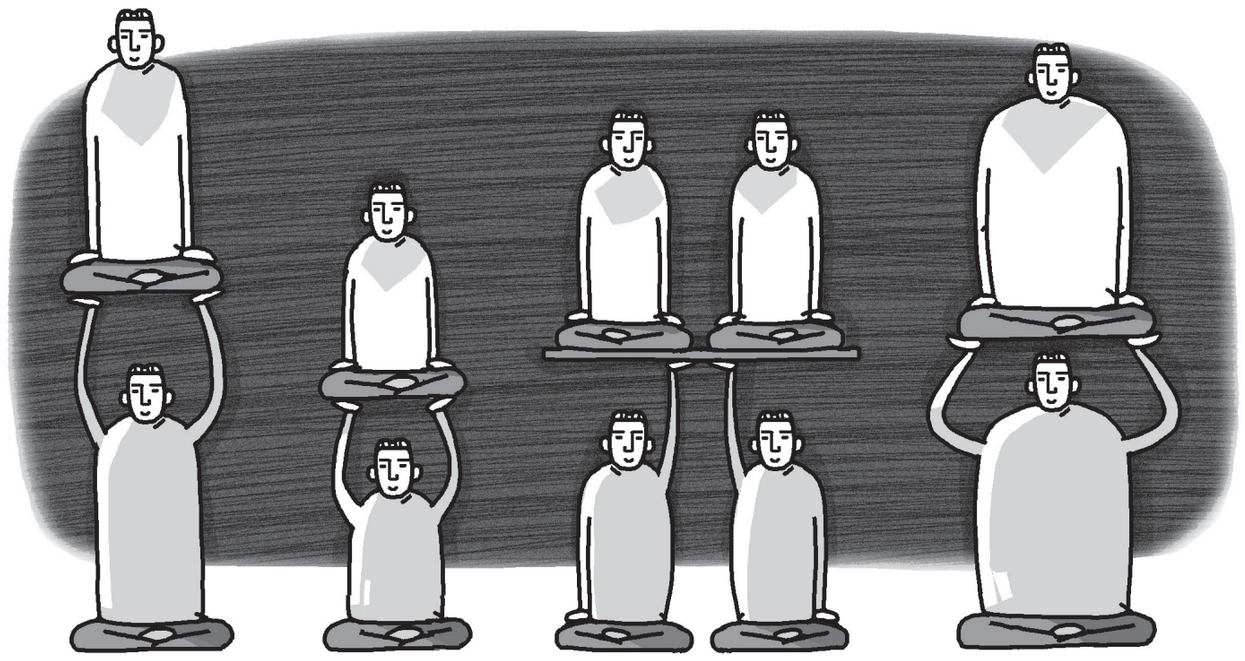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